



어제 원희룡 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검찰, “벌금 100만원”... 직위상실형 구형

“공짜 피자 배달·죽세트 홍보는 명백한 기부행위” 원지사 “정당한 직무수행일 뿐... 위법 인식 없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 선고 받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에서 자동 퇴직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최후 의견을

통해 무죄를 주장한 원 지사 측 논리를 반박했다. 검찰은 죽세트 홍보에 대해 “피고인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특산물을 홍보했는데 검찰이 유독 자신만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둘 사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원 지사가 홍보한 ‘000영양죽’ 세트는 즉석 조리식품으로 특산물이 아니라 가공 제품이며 기부 상대방도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홍보한 것은 자연산, 젓갈 등 다양한 특산품으로 생산·판매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특

정되지 않아 홍보 행위로 인한 수혜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피자 제공에 대해선 “법령에 의한 직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더큰 내일센터 교육생들은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인 소속 직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당시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피자를 선물한 것은 도지사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피고인이 깜짝 방문하는 바람에 오히려 강의가 중단된 점을 비취보면 당시의 피자 제공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업무 행위를 위한 간담회·회의·행사로 볼 수 없고, 피자 구입·배달·전달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 지사 측은 죽 세트 홍보와 피자 제공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원지사측 변호인은 “피자 제공은 과거 교육생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것 뿐이지 기부행위의 효과를 돌리려는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위법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늘 마음이 쓰였다”면서 “죽 판매와 피자 이벤트도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으로 저와 직접 관계도 없는 분들이 마음 고생을 해 안타깝다.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지사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이상민기자

코로나19 제주 68·69번 확진자 발생

모두 수도권 방문 이력... 이달 들어서만 10명째

24일 제주지역 68·6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10명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 조사에 착수했다. 확진자 2명은 모두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8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 23일 확진판정을 받은 6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22일 입도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다. A씨는 현재 서귀포의료원 응급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69번째 확진자 B씨는 지난 18일

수도권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 B씨는 코막힘 등의 증상으로 지난 23일 서귀포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도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도는 이들 확진자에 대한 세부 이동경로를 파악 중이며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 되는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날 서울 소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C씨와 D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잇달아 통보 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20-23일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여행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백금탁기자

구좌·성산읍 해수면 상승 ‘가장 취약’

제주연구원 “동부권·일부 동지역 37% 해당”

제주지역에 대한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지역이 연안저지대를 중심으로 37%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풍 유입, 해수면 상승, 해안 침식 등의 기후변화 영향이 최근 더욱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방재 관점의 대응책 마련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고있다. 제주연구원이 24일 발표한 ‘해수면 상승 영향에 따른 제주지역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재해취약지역(해안육역 1km 이내)은 1등급 8.5%, 2등급 28.5%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이 가장 취약했고, 서쪽과 북쪽 지역 순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왔다. 반면 서귀포시와 남원읍 등 남쪽지역은 전반적으로 취약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취약성을 등급별로 보면 1등급 지역은 제주도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해안선을 따라 집중됐고

제주시 동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취약성 2등급 지역은 서귀포시 동지역과 남원읍 일부를 제외한 도내 해안 대부분이 해당됐다. 이에 따른 제주도 전 해안선 일대에 대한 해수면 상승 영향을 대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창열(책임연구원)·문경태·강민석 연구팀은 “제주지역 해수면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라며 “지자체의 관리 노력을 비롯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등을 정제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4개 지역의 해수면 상승폭은 성산포가 5.38mm로 가장 높고 제주도 5.22mm, 모슬포 3.59mm, 서귀포시 3.79mm 등이다. 이는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2.74mm에 비해 2배 수준이다. 백금탁기자

렌터카 보험사기 주범 실행

법원이 제주지역에서 렌터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주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른 B(1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 4일 렌터카를 타고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일부러 교통 사고를 내 보험금 1000만원을 챙기는 등 2020년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올해 4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 일당의 보험 사기 행각은 경찰에 달미를 잡히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일당 60여명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상민기자



자전거로 즐기는 제주 최고 풍광 24일 자전거를 탄 관광객들이 제주 최고 풍광을 자랑하는 성산을 해안도로를 지나고 있다. 이상민기자

소방차 출동하면 교차로 신호 ‘녹색’으로

도소방안전본부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내년부터 소방차량이 재난현장 출동 시 교차로의 신호가 자동으로 녹색으로 변하는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제주 도시에 도입된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도내 13개 교차로에 소방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준공, 2021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출동 중인 소방차량

에 탑승한 대원이 차량 내부에 설치된 단말기를 작동하면 교차로 진입 약 500m 전에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정지신호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출동 과정에서 대원이 신호 제어를 요청하면 신호운영실에서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변경해주는 수동 신호제어시스템과는 차별화를 뒀다.

다만 모든 현장 출동 시에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신호시스템은 화재의 경우 주거·비주거 화재, 특수·차량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구급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생사와 장애 여부가 결정되는 등 위급한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뒀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신호에선 해당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 현재 제주시내 주요 교차로 13개에 해당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61대 소방차량에 단말기가 설치돼 있다. 강대해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Cocoly Powerful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필보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방제를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키위농가에 희소식 21세기 최첨단 비료 “이노페스” 탄생
이노페스 성분
원료명: 히토류, 식이유형(MSM), 부식산, 벤토나이트, 고삼·백합추출물, 아미노산,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효과: 염류중화·토양개량·천연항균 작용, 천연항균 작용, 유기물 대체·토양개량, 토양개량, 토양해중기피, 천연질소질 공급, 필수 미량요소 공급
특징: ☆가스피해가 없다 ☆항균작용으로 토양이끼 억제 ☆염류중화 작용으로 뿌리생육 발달로 역병예방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히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사용방법: 키위 = 1,000평 기준 20~25포(포당 15Kg)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처 (주)포트라 판매처 농협·김협
공급처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